

2021년 한국기독교 부활절새벽예배

#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신명기 30:1-4, 로마서 8:22-25, 마가복음 16:9-15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5시 30분

신내교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인류와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걸으며 다시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대면 소통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에 힘입어, 자기 비움의 영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성장을 향한 욕망의 질주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삶과 사역을 깊이 성찰하며 생명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활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희망하며,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값비싼 친교”를 회복하는 화해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관통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값비싼 친교”요, 새로운 존재로의 갱신입니다.

### 목차

2021년 부활절 메시지 ..... 03

#### 부활예배 순서

I. 빛의 예식 ..... 07

II. 말씀의 예식 ..... 12

III. 물의 예식 ..... 15

IV. 성찬의 예식 ..... 20

V. 위탁과 파송 ..... 26



우리는 역사의 부활을 희망하며,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힌 진실과 평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역사 속에 부활한다는, 성금요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과 평화를 어둠 속에 가두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감추어진 진실과 평화의 빛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전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나며, 고난 당하는 생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고 탄식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실의 인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야 합니다. 이윤추구라는 mammon의 법칙 아래 생산 도구로 전락한 채, 위협의 외주화에 희생 당하고 있는 일용직과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위로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노동의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의 장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이 평등한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현장을 찾아가 화해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대상화하고 착취한 결과로 나타난 인류공멸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인류공동체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패권구도 속에서 신 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되면서, 동맹의 틀에 갇힌 채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평화에 목말라하는 한반도의 민(民)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민주주

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에 기도와 장기적 지원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맞이하는 2021년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수난 당하시는 사랑과 부활의 영성으로 국적과 인종, 종교와 이념, 성별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고통 당하는 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됩시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같은 존재의식을 가지고,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흠어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합시다.

자기 의에 충만하여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양을 삼는 신앙의 오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생명을 섬기는 머슴으로 살아갑시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이, 교권주의적 획일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새 희망이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백화만발 한 하나님 나라 정원의 희망과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흥정

# 2021년 한국기독교 부활절새벽예배 예식순서

◆ 인 도 ◆  
김광년 목사 | 신내교회

◆ 피아노 ◆  
길자영 집사

◆ 오르간 ◆  
유성혜 집사

◆ 금관5중주 ◆  
브라스마켓

| 일러두기 |

성서는 「공동번역 개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 빛의 예식

### 입당

예수 부활했으니(찬송가 164장) / 다같이

(※찬송이 시작되면 순서를 맡은 이들이 입당하고, 회중은 모두 일어나서 찬송한다.)

(※찬송을 마치면 모두 자리에 앉는다.)

조금 빠르게

1. 예수 부활했으니  
2. 대속하신 예수 할렐루야  
3. 마귀 권세이긴 주  
4. 길과 진리 되신 주

만민 찬송하야  
선왕의 찬송이 되  
우리의 찬송이 되  
하

천사 들이 즐거워  
높은 하늘이 생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찬송이  
되

기쁜 찬송 부르  
날리 반포 하  
우리 찬송 하  
네 찬송 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 새빛을 맞이함

- ◆ 부활의 증인1 :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 님(세월호가족)
- ◆ 부활의 증인2 : 이진형 목사(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 ◆ 부활의 증인3 :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 부활의 증인4 : 데이비드 브랑 탄 David W.G. Brang Htan 신부(미안마성교회)

인도자 :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지나 생명을 되찾으신 이 날에,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며 이 날을 기뻐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 주님의 평화를 닮아 가도록 함께 기도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1 : 하나님!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어두운 세상을 지켜보실 작정입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빛으로 오셨지만 자꾸만 주님의 빛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활 새벽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봅니다!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도록 하실 것임을, 그렇게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심을 봅니다.

회 중 : **할렐루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2 :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지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땅과 하늘과 물과 온갖 생명이 탄식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 당장의 편리함에, 무분별한 기술 발전에 순응하며 방관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활 새벽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봅니다!  
더 이상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심을 봅니다.

회 중 : **할렐루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3 :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야 이 사회가 움직일까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활 새벽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목수로 일하시며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 세상도 노동의 숭고함을 존중하며, 노동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심을 봅니다.

회 중 : **할렐루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4** : 하나님! 지금 미얀마에서는 불법적인 쿠데타로 어린이와 청소년, 아무 잘못도 없는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을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에, 주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이 부활 새벽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 날이 곧 올 것임을, 그렇게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심을 봅니다.

회 중 : **할렐루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 부활초 점화

(※부활의 증인1은 밝힌 초에서 불을 채취하여 부활초에 옮겨 붙인다.)

**부활의 증인1** :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어둠에 새빛을 비추소서.

**인도자** :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이 초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 중 : **아멘.**

### 부활 영광송

할렐루야 할렐루야(찬송가 163장) / 다같이

보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다함께 찬송 부르자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2. 주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3. 흰옷을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느말  
4. 주뵈지않고 믿는 자 그 음아름다워라  
5. 주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 들마 음다 하

1. 다함께 찬송 부르자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2. 주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런 여인들  
3. 흰옷을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느말  
4. 주뵈지않고 믿는 자 그 음아름다워라  
5. 주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 들마 음다 하

D.S.

이 날에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을 찾아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이 미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운 찬송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 말씀의 예식

## 성경봉독

- ◆ 독서1 : 정승원 청년(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회연합회 회장)
- ◆ 독서2 : 김창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 ◆ 복음서 : 황규홍 사관(구세군한국군국 업무국장)

## 독서1

### 신명기 30:1-4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복과 저주를 담은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흠으셨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와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마음을 모아 기울이고 있는 정성을 다 쏟아 오늘 내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 쫓겨갔던 너희를 만 백성 가운데서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너희가 비록 하늘과 땅이 맞닿는 데까지 흩어져 갔더라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거기에서 모아 데려오실 것이다.

## 독서2

### 로마서 8:22-25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 회중은 일어서서 찬송하고 복음을 듣는다. 봉독이 끝나면 자리에 앉는다.)



## 복음서

### 마가복음서 16:9-15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두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봉독자 :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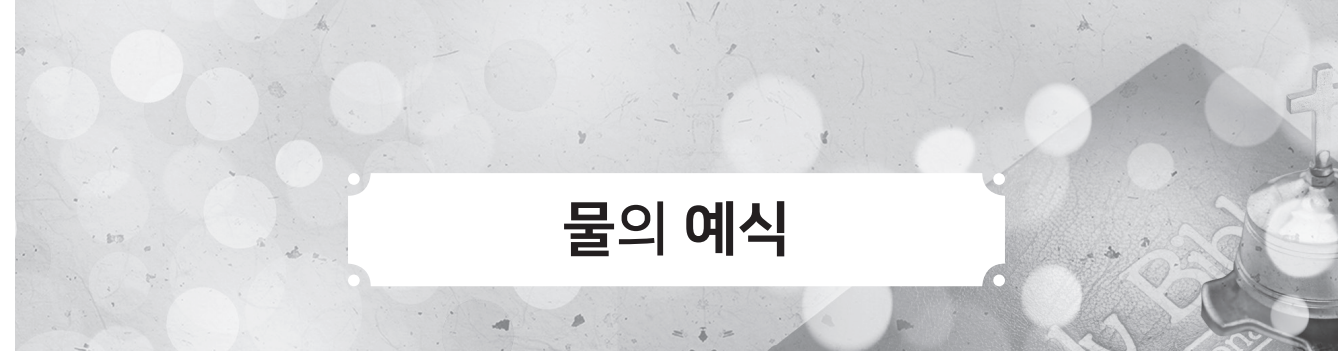
### 특송

“살아계신 주” - 메조 소프라노 이현승

### 설교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 육순종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장)



## 물 의 예식

### 세례언약 재확인식

◆ 김은섭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말은이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엄숙한 약속인 세례언약을 재확인함으로써 모든 불의와 폭력을 거절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섬길 것을 새롭게 서약합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을 거절하겠습니까?

회 중 : 예, 거절하겠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회 중 : 예,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회 중 : 예,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회 중 : 예,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지키겠습니까?

회 중 :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회 중 :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회 중 :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이 :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회 중 :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이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세례 때의 언약을 기억하며 새 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 중 : 아멘.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기도1 : 최소영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 기도2 : 변창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총장)

◆ 기도3 : 김정수 목사(대한기독교서회)

◆ 기도4 : 김경민 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1. 교회를 위하여

말은이 :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진리와 평화로 채워주소서. 부패한 곳은 정결하게 하시고, 잘못에 빠져있는 곳은 바로 잡아 거듭나게 하시며, 옳은 것은 굳건히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 중 : 주님,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바로 세워 주소서.

### 2.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말은이 :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순결한 행동이 넘치도록 축복하소서. 이 세상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가 세워지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모든 폭력과 알력과 혼란에서 구하시고, 교만과 무례와 모든 악습에서 건져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회 중 : 주님,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 3. 창조질서를 위하여

말은이 :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모두를 잘 돌보게 하소서. 문명의 발전이라는 논리로 부분별하게 개발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께서 베푸신 자원들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께 받은 지혜와 겸손으로 적절히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참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물려주어, 사랑과 평화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회 중 : **하나님, 정의로운 평화로 이 땅을 채워 주소서.**

### 4.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하여

말은이 :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특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차별과 혐오 속에 사는 이들, 또한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을 돌아보시어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회 중 : **하나님, 저희가 사랑과 연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

◆ 데이비드 브랑 탄 David W.G. Brang Htan 신부(미얀마성공회)

(※음악이 흐르면 다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린다. 침묵기도 후 말은이가 나와 기도한다.)

### 2021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남측초안)

◆ 나해집 목사(한국교회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기도문은 p.28 참조)

(※이 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가 매해 준비해 왔으나, 2021년은 북측의 합의가 없어 남측에서 초안한 기도문을 통해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 성찬의 예식

집례 : 이경호 주교(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집례위원 : 한주희 사제(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분급위원 : 유수열 장로, 조순희 장로, 현봉기 장로(신내교회)

## 평화의 인사

(※다함께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를 준비한다.)

집례자 :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회 중 : 할렐루야!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집례자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모두 전후좌우 사람과 가볍게 눈으로 인사를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회 중 :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봉헌

“무덤에 머물러” 금관5중주 - 브라스마켓

## 봉헌기도

집례자 : 주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성찬기도

집례자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집례자 : 마음을 드높이

회 중 : 주님께 올립니다.

집례자 :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집례자 :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

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

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회 중 : **아멘.**

## 주의기도

(※각자의 전통대로 기도드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

## 성찬 나눔

집례자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찬을 나눕니다.

회 중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집례자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회 중 :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 성만찬에의 참여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받아 영한다. 성찬을 받을 때 분급위원이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이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응답한다.)

(※성만찬이 끝날 때까지 찬송가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을 반주에 맞추어 묵상하고 찬양한다.)

1.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 나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 고  
 3.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 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 마 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 고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 니 주님께 모든 열매 말기 리  
 근심 짐을 벗어 버리 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 다  
 주권능으로 힘이 솟아 서 주안에 내가 만족합니 다  
 어린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리 아멘

##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한 성만찬 참여 안내

1. 교회 전통에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만찬의 신비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머무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성만찬' Spiritual Communion 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2.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기도문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 \*마음 성만찬 Spiritual Communion 기도문

주님께서 거룩한 성체에 진실로 현존하심을 믿나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성체를 몸으로 모시지는 못하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기를 청하오니, 제가 마음과 영혼과 정신으로 주님께 연합하여 주님을 모시겠나이다.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소서. 아멘.

## 성찬 후 기도

다함께 :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위탁과 파송

### 코이노니아

◆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축복기도와 파송

◆ 이철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말은이 :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어,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회 중 : 아멘.

말은이 :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 중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 파송 성가

주님께 영광(찬송가 165장), 다같이

(※회중은 모두 일어서서 찬송한다.)

조금 빠르게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는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삶은 헛될 뿐 이라 주의 사랑으로

들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겼네  
세상이기 요 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 2021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남측초안)

생명의 하나님!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질병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북과 남)의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자연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21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의 환희와 동시에 통한의 남북(북남)분단 76년, 남북(북남)이 민족의 숙원인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에 이르는 해입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해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이토록 안타까운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공존과 통일로 극복하므로 한(조선)반도 위에 하나 된 민족사의 위대한 부활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북과 남)이 30년 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북남)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면서 한(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 가득 담았던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남북(북남)이 잊혀져 가는 남북(북남)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리게 하옵소서. 남북(북남)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멈추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감동적인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하여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정전 이후, 6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비무장지대에 외롭게 멈춰서있는 녹슨 철마가 이제 다시 남북(북남)의 사랑과 희망, 웅비와 번영의 미래를 가득 담아 남북(북남)을 연결하고 대륙을 행하여 힘차게 달리게 하여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남북(북남)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애를 나누면서 환희 가득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2021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남북(북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광고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 202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새벽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소를 허락해 주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신내교회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오늘 드린 헌금은 미안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연대의 마음으로 미안마 교우들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희망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화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기독교 부활절새벽예배

#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

신명기 30:1-4, 로마서 8:22-25, 마가복음 16:9-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